

인터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북한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 구축할 터”

- 전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부응, 건설사업관리 업역 확대 및 용역 대가 현실화도 -

국내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선도할 통합 협회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지난달 15일 출범하였다.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건설설계협회가 통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통합 협회의 수장으로는 건설감리협회 회장이던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노진명 회장은 “지난 1987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이 관리 및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부흥에 초점을 맞춘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업역간 칸막이를 풀고 글로벌 경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태어났다”며, “앞으로 회원사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자 및 실무자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회의 연구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 기능도 강화해 명실상부한 연구기관과 종합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회원사의 애로 사항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회원사를 위한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통합 협회의 연착륙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노진명 회장을 만나 건설기술용역업의 현안과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노진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초대 회장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딛고서 협회 통합을 이루어내셨기에 그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이며, 협회 발전을 위한 신념도 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으로 어제의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건설설계협회’가 오늘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10월에 ‘협회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통합에 필요한 정관 등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취지에 적합하면서도 국내의 건설기술 용역을 글로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통합 협회명을 선정하기 위해 현상 공모 및 설문조사를 거쳤고, 마침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새 이름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원활한 통합 협회의 출범과 운영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5월에 국토부로부터 정관을 승인 받음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였고 법인 등기도 마무리했습니다. 그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힘든 결정들도 있고 애로 사항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합만이 우리 업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협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원사들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마치 큰 숙제를 하나 해낸 기분입니다. 그러나 더 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에 감회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인본(人本),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일거리도 성공도 결국은 직원의 업무 능력에 따라 좌우되고 회사의 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계를 이끌어 갈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회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협회 직원의 근무 환경이 나아지고 직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 회원사를 위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세를 갖춰 회원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를 적극 제도 개선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깁니

다. 뭐든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 주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뜻을 함께한다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봅니다.

협회 통합에 따른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협회 통합의 기본 방침이자 최종 목적은 국내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발전 추구입니다. 협회 통합의 장점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속성과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용역업계는 한 회사가 설계, 감리, CM, 품질 등의 건설기술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한 업무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영역별 해당 지자체나 협회에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회에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회비를 내야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손실이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분화된 건설기술 용역의 업무 영역 및 건설 기술 인력 분야를 통합해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 개정하고, 건설기술 관리 체계를 관리와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뜻에서 제명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건설기술 업무 영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협회와 설계협회는 회원사의 불필요한 이중고를 막기 위해 지금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합쳤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건설기술 용역의 실적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우리 협회가 주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주청이나 회원사가 여러 곳으로 통보 및 확인했던 내용들을 한 곳에서 관리 및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합된 우리 협회를 건설 기술 정책 추

인터뷰

진의 단일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졌고, 회원사는 이점으로 드는 회비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회로서는 본연의 업무인 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제도 개선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것이죠.

협회 통합에 따른 장점이 많은 만큼 향후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과 비전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국내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국내 건설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고 국가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SOC 투자는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을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SOC 예산 축소 정책에 따라 장기간 침체 또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업계도 이러한 국내 건설 기술 용역시장의 침체로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 부족과 현지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국내 용역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 100대 엔지니어링업체에 우리 업체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사업 참여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건설산업이 정체된 상태에서 북한의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는 분명 국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시 국내 용역업체들이 북한의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

과 협력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생각입니다.

셋째, 건설사업관리 업역을 확대하고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대가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으로 전면 확대되는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력하되, 건설사업관리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대가의 현실화를 통해 건설시장에서 우리 용역업체가 제 값 받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협회의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 강화에 힘을 계획합니다. 우리 협회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연구 용역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협회의 연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업계의 발전과 협회의 수익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법정 교육 외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협회내 교육기관은 '종합 교육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협회 사무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설 관련 정보를 회사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회원사의 애로 사항을 항시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개편되었는데 그 효과와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법 개정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를 기획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에 따라 감리업과 건설사업관리업 사이의 관련 제도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실적 관리 등의 업무 통합으로 행정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공공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공사 관리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국내 건설기술 용역업체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CM과의 통합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지금은 우리 협회 조직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져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체의 협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한다면 답은 보이겠지만, 아직은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국내 건설기술 용역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개선돼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 업체가 해외 진출시 가장 먼저 꼽는 애로점은 인재입니다. 즉,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국내 업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 대상국은 개발도상국인데, 빈약한 현지 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해외 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학 차원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해외 진출시 사전 해당 국가의 외교 기관과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해외 건설시장에 국내 기업의 실적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던 사례 등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지금껏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용역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자체 수의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건설업계, 특히 건설기술 용역인들에게 당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건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상생(相生)을 전제로 업계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는 함께 커 나갈 수 있도록 경쟁 관계를 유도하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업계에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효과적으로 제도를 고쳐 나갈 것입니다. 업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건의 사항도 업체 규모별로 정리해 사안별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이끌어 나갈 젊은 기술자들이 일하기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선배 기술자로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회사와 기술자는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또 기술자간에는 선·후배가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CERIK

글 : 이형우 편집장